

# ‘이홍하 딜레마’에...광주 서진여고 문 닫을 판

〈홍북학원 이사장〉

### 낡은 시설 개선 못하게...남녀공학·특성화고 전환도 반대 신입생 미달·교사 과원 속 생존 위한 학제개편안 못올려 내년 여고 입학생도 1032명 감소...학생 유치 전전공공

홍북학원 산하 서진여고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 내년에 광주지역 여고 신입생 수만 1000명 이상 줄어드는데다, 설립자인 이홍하(78)씨의 반대로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광주 고교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특성화고 전환을 골자로 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을 승인받지 못해 정원을 채우기 힘들어지면서다.

교직원들은 당장 방학이 끝나면 정원 미달을 막기 위해 중학교를 돌며 학생 유치를 나설 계획이지만 낡은 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이대로라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학생 1000명 사라지는데...=광주 시교육청이 26일 내놓은 ‘2016~2020 초·중·고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광주지역 고교 신입생은 1만8730명으로, 올해(2만1011명)보다 2281명이 줄어든다. 여고 입학생은 1032명이 줄고 남학생은 1249명이 감소한다. 서진여고는 올해 282명의 신입생을 뽑아 모집 정원(495명)의 57%만 채웠다.

전년도와 같은 조건에서 내년 신입생 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학생 수를 채울 가능성은 훨씬 어려워졌다는 예

다. 전체 학생수가 줄면서 내년도 인문계고 합격 커트라인이 올해보다 낮아질 경우 학생 확보는 더 힘들어진다.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내신성적을 토대로 한 합격선은 광주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교의 경우 90.1%였다.

서진여고측은 이같은 점을 감안, 여고에서 남녀공학으로 바꾸기 위한 ‘학교 명칭 변경’을 추진했지만 이홍하씨의 반대에 교육부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광주교육청의 입학전형위원회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을 올리지 못했다.

◇경쟁력 없는 학교도 못바꿔=서진여고는 특성화계열학교(10학급) 일반고 인문계열(보통과) 5개 학급을 함께 운영해왔지만 매년 미달 사태를 면치 못했다. 인문계열 보통과는 비평준화고에 해당돼 평준화 일반고 학생 배정이 끝난 뒤에 추

가 모집을 통해 신입생을 뽑지만 올해 5개 학급(정원 175명) 중 3개 학급만 채웠고 지원율은 53%에 그쳤다.

특성화계열학교 중 경영정보과의 경우 다른 학교에 견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160명 정원 중 50명의 학생만 뽑았다. 지원율도 31%에 머물렀다.

학생 수 감소는 교사 정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줄어든 학생 수에 따라 올해만 6명의 교사가 남는 상황이 발생했고 내년에는 12명으로 ‘과원’(過員)이 늘어날 지 모른다.

서진여고측이 일반계고 인문계열 폐지 및 경쟁력 없는 경영정보과 대신, 관공사가 높은 호철외식조리과 개설 등으로 학교를 개편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다. 학교측은 광주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컨설팅까지 받았지만 이홍하씨의 반대로 교육청의 입학전형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올리지 못했다.

◇비 새고 문은 비틀어졌는데...=학교 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비라도 오는 날이면 학교 강당에는 30개 가량의 물바가지와 채워수업을 해야한다는 게 현장 교사들 설명이다. 자칫 학생들이 미끄러져 다칠 우려가 높다는 얘기도. 낡은 교실 문은 제대로 닫혀지지 않지만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사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학이 끝나자마자 학생 유치를 위해 중학교를 돌며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정원 확보에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폭언에 유흥업소업주 수시 접촉 영암경찰서 경감 직위해제

부하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업주와 관광을 떠나거나 수시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전남지역 경찰서 과장이 직위해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영암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부하직원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고 유흥업소 주인과 수시로 접촉한다는 정보를 입수, 감찰을 거쳐 직위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불발법령은 이후 부하 직원을 상대로 회의시간 등에 수차례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겠다”, “이따위로 할 거면 출근하지 마라”고 상습적으로 폭언하거나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감이 단속 대상업소인 지역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어울려 관광을 가고 수시로 술자리를 함께 한 정황도 잡고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그러나 “폭언과 욕설을 일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서를 장악하고 열심히 일을 하려다 생긴 일이며, 유흥주점 업주와 접촉한 사례도 과장된 측면이 강하다. 징계위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 조영표 시의원 영장 청구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교사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동창과 함께 광주시 남구 모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으로부터 1인당 8000만~1억원씩 총 6억2000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쟁전 혐의(알선수재,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7일 오후 열리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 시골 5일장 돌며 상습 소매치기

○~시골 5일 장을 돌며 노인들이 흥정하는 등 한눈을 파는 틈을 노려 상습적으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쇠고랑 신세.

○~26일 영암경찰에 따르면 김모(63)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20분께 영암군 미암면 독전 5일 장에서 A(여·83)씨의 가방을 면도날로 찢어 현금 29만4000원이 든 지갑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6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김씨는 영암과 무안, 함평, 진도 등 전남지역 시골 5일 장을 찾아다니며 혼잡한 틈을 이용해 장을 보던 노인들의 가방이나 노인들이 수레나 물건 위에 잠시 놓아둔 지갑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시장 주변 CCTV분석을 거쳐 검거.

/영암=전봉헌기자 jbh@



외국인들 “청자빚기 즐거워” 26일 오전 강진군 대구면 청자박물관에서 강진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학생들이 청자빚기 체험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인 제44회 강진청자축제는 30일부터 8월7일까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매년 학생수 감소...고민 깊어지는 광주교육청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광주시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고교 신입생이 2000명 넘게 줄어들면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특성화고와 평준화 일반고에 이어 후순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비평준화고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워지면서다.

반면,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추면서 평준화 일반고에 못가게 되는 신입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테스크포스팀을 꾸렸지만 아직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이유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8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위원회’를 열고 47개 고교별 입

내년 고교 신입생 2000명↓ 비평준화고 정원 확보 난감

학급 당 학생수 조정 검토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이견

학전형을 심의했지만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이견으로 다음달 9일 다시 심의키로 했다.

교육청은 당시 마이스터고(소프트웨어고·광주자동차설비공고)에 대한 신입생 모집 요강 등만 결정하고 특성화고와 평준화 지역 일반고·비평준화고의 전형 요강은 결정하지 못했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학급 수를 줄이

는 대신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조정해야 할 ‘학급당 학생 수’는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특성화고·일반고에서 대부분을 수용하게 될 경우 학생 수 감소로 비평준화고의 신입생 자원(일반고 탈락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학급 당 학생 수’를 낮추면서 학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다만, 특성화고의 경우 현재 31명인 학급 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줄이는 안이, 일반계고의 경우 34.7명 수준인 학급 당 학생 수를 32명 가량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다슬기 채취 ‘익사 주의보’

‘1kg 2만원’에 채취 열기...화순 이어 구례서도 사망사고

강이나 하천에 다슬기를 잡으려고 나선던 노인들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오전 8시40분께 구례군 섬진강에서 이모(70)씨가 숨져있는 것을 수색에 나선 119구조대가 발견했다. 인근 마을에 사는 이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가족들에게 “다슬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선 뒤 실종됐었다.

앞서 지난 21일 밤 10시께 화순군 북면 동북천에서도 주민 유모(여·79)씨가 물

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다슬기를 잡으러 집을 나섰고, 밤이 되도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수색에 나선 119구조대 측은 숨진 노인들이 다슬기를 잡다가 미끄러지거나 자신도 모르게 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갔다 고통 탓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슬기를 채취하려 나선 노인들이 잇따라 변을 당한 것은 다슬기가 초여름부

터 체질을 맞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질환 개선이나 피로회복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다슬기를 채취해 가족과 나눠먹으려 홀로 집을 나서 물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연산 다슬기의 경우 씨알이 굵은 것은 kg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을 훌쩍 넘겨 거래가 이뤄지면서 용돈벌이를 하려고 이렇다할 준비도 없이 홀로 물가로 나서는 노인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슬기를 잡으려고 물가로 갈 때는 여럿이 함께 움직이고 해가 지기 전 반드시 물가를 빠져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호기자 kh@kwangju.co.kr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매 추천물건

-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11,546㎡ 건물 5,733㎡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21억9천(45%)
- ★ 광주 서구 차평동 상무나이트빌 10층중 10층 스키아리운지상가 83㎡ 감정가 8억7천7백 ▶최저가 8억7천7백
- ★ 광주 광산구 산청동 광주여대 인근 운천학원부지 토지 6,655㎡ 건물 443㎡ 감정가 27억6천1백 ▶최저가 27억6천1백
- ★ 광주 북구 용봉동 전대후문 인근 영화관 1층 684㎡ 상가 감정가 35억5천5백 ▶최저가 19억9천(56%) 식당, 대형판매장 적합
- ★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가 57억6천7백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 ★ 광주 북구 신안동 자동차거리 6층모델 토지 363㎡ 건물1,024㎡ 감정가 9억9천3백 ▶최저가 5억5천6백(56%) 코너위치
- ★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건물 대지181㎡ 건물320㎡ 감정가 2억6천5백 ▶최저가 1억8천5백 투자추천

### 투자 추천 물건

- ★ 광주 북구 유동동 대로변 6층상가 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유동인구많은 ▶매매 55억원
- ★ 광주 북구 유동무인텔 대지 1,010㎡ 건물 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 수익위치좋은 ▶매매 20억원
- ★ 광주 수원동 경찰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역 대지 475㎡ 월 8백만원 ▶매매 13억원
-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 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당결정
- ★ 광주 북구 신원동 첨단2지구 신축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 월 2천3천 송 18억 ▶매매 49억 5천
- ★ 주월동 EG더원아파트 인근 대지 661㎡ 현식당운영중 투자적합 대형 판매장 상가 건축적합 ▶매매 13억원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요양병원허가취득)
- ★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앞 대지480㎡ 업무지원 시설부지코너위치 건폐70% 용적250% ▶급매가 4억4천(조정무)

### 수익형 추천

-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델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개끗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 ★ 광주 첨단2지구 대지 258㎡ 건물380㎡ 코너위치 1층상가 다가구 5세대 인접 월 440만원 용 2억2천5백 ▶매매 9억3천
- ★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구펜션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수익성 미래 가치우수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제주도 서귀포 시장정마을펜션, 빌라 부지 적합 4,000㎡ 주택 28세대 가능수익형 28억선교환
- ★ 광주 동구 지산동 대지 298㎡ 건물 1,088㎡ 원룸 18개 투룸 6개 쓰리룸 6개 (용4억5천포함) 대로변버스 정류장앞 ▶매매 13억5천
- ★ 광주 소촌동 대형상가 대지 2,146㎡ 주차장빌딩 포함 대형마트, 사우나등 고수익상가 매매 상당결정
- ★ 목포시연산동 롯데슈퍼 인근대로변 버스 정류장 앞 대단위아파트 단지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 947㎡ 지하, 1층 상가 사무실, 2~4층 오피스텔 ▶매매13억5천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상담환영